

## “도민참여·비전 없이 장밋빛 구상만”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보고  
 “역기능 저감방안 없는데다 제2공항 선불리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장밋빛 구상 제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7일 제396회 정례회 제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번이 세 번째 보고인 셈이다.

우선 이번 종합계획안이 자료부터 부실하게 작성된 데다, 제주의 10년 후를 내다본 미래 비전보다는 기존에 다뤄졌던 사업에 대한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비전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라고 하면서 보고서에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 하는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 정리했다”고 비판했다. “비전부터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세부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용역인인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타”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시된 사업들을 살펴보니 기존에 각 부서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였다”며 “제주의 10년을 내다 본 연구 자료치고는 비전 제시가 아닌 기존 과제에 대한 나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천력 없는 계획은 지나치게 나열한 반면 역기능 저감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1·이도 1·건입동)은 “2031년 계획지표를 보면 경제와 관련해 고용률은 ‘안정적 유지’, 전체 사업체는 ‘지속 증대’, 농업과 관광객 목표에 대해서는 ‘지속 증가’, 상수도 누수율은 ‘크게 개선’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심각하다”며 “구체적인 계획 지표가

나와야 그에 맞는 인프라를 설계할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문 의원은 “지나친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 그간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났지만 역기능 저감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판기 연구위원은 “보완해 오겠다”고 답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은 “도민참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를 핑계로 도민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용역과 관련한 분만 참석하면 그것이 무슨 공청회인가”라고 성토했다.

특히 강 의원은 “10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제도개선’이라는 항목을 두고 도 소속 특정 부서의 의견과 민원사항이 들어가 있다”면서 “성평등정책관을 3급으로 조정하고, 평화대외협력과 존속이 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들어가느냐”고 비판했다.

허범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부분은 생략하겠다”고 답했다.

중간보고회에선 책자에 빠졌던 제2공항 관련 내용이 공청회를 위한 최종 계획안에는 포함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공항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거나 환경부가 동의할거라 판단해서 종합계획에 포함한 것인가”라며 “현재 제2공항 관련 논의가 끝난 게 아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판기 연구위원은 “현재까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변화가 없고 제주도는 추진이 원칙이라는 점을 반영해 담는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정부의 정책결정이 내려지면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꽃망울 터트린 신서란 17일 서귀포시 난대야생대산림연구소 앞마당에 신서란 꽃이 활짝 피어 오가는 직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신서란은 열대성 다년생 백합과 식물로 그 꽃을 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다혜기자

## 제주시에 ‘도시바람길 숲’ 80ha 조성

내년까지 제주시에 80ha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연결숲·확산숲을 도로변과 하천변, 공원에 만드는 것이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2022년까지 총 100억원(국비 50억원·도비 50억원)을 투입해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바람길숲은 미세먼지와 도심지 폭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도심지 내 바람의 이동

통로가 되는 연결숲·확산숲을 도로변과 하천변, 공원에 만드는 것이다.

예정된 조성 면적은 80ha(올해 50ha·내년 30ha)다. 먼저 올하는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돼 신제주와 구제주, 화북권역에서 확산숲과 연결숲이 조성되며, 내년에는 신산공원과 용담공원, 아라리구 근린공원 등에 숲이 만들어진다. 송은범기자

## 원 지사,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역설 25일 제주포럼서... 공동합의문에도 서명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는 25일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원 지사는 이날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의 구체적 역할과 실천의 뒷받침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정과 더불어 정통성을 확보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평화도시 연대를 도모하는 도시들 간의 참여와 실천방안, 협력사업들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원 지사는 세계평화 확산과 실천방안 모색 등의 내용을 담은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구축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다.

특히, 이번 공동합의문 서명에 유럽의 대표적인 평화도시 독일 오스나브뤼크와 프랑스 베르망의 시장들

이 영상으로 직접 참여한다.

세션 토론에서는 토마스 슈나이더 레마르크 평화센터장과 필립 한쉬 베르망 세계평화센터장,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참가하고, 좌장에는 국립외교원의 김태환 교수가 맡아 평화도시 연대방안과 실천사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연이어 ‘한대평양공원 도시협의체’ 세션이 개최된다.

이 세션에서는 7개의 도시 공원과 재단 관계자들이 참가해 한대평양공원 활동상황과 향후 계획, 향후 공원을 매개로 한 평화문화운동 확산 방안을 고민하고, ‘글로벌 평화도시연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 “한라산 구린굴·평굴 2만년 전 형성”

세계유산본부, 정밀 지질조사 과정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인근에 분포하는 구린굴과 평굴이 백록담 분출시 한라산 북사면을 따라 흘러내린 용암류에 의해 약 2만년 전 형성된 용암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한라산 지질도 구축사업(2020-2023년)의 일환으로 한라산 북서부 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결과이다.

한라산연구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4구역으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지질도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북서부 일대의 야외 지질조사와 더불어 3D스캔을 통해 동굴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지리 정보화함으로써, 용암동굴이 백록담에서 분출한 용암류와 관계됨을 가시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연구팀은 야외 현장조사와 함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

(2016-2019년)’에서 얻은 연대자료 등을 재해석함으로써 해당 동굴이 약 2만년 전 백록담 분출 시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구린굴은 마치 호리병과 같은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박쥐서식처로서 최적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스캔을 통해 구축된 3차원 자료는 한라산 동굴 박쥐 거동 등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린굴의 하류에 위치하는 평굴의 경우 여러 동굴이 갈래의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미로형 용암동굴의 형성과정뿐만 아니라 용암의 흐름과정을 역으로 추적해갈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한라산연구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두 용암동굴의 기원지와 형성시기를 밝힘과 동시에 3D 스캔을 통해 동굴의 형태와 규모를 정량적으로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대리기자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220 (17일 18시 기준)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

Sustainable Peace, Inclusive Prosperity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아피짓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

**케빈 러드**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2016)

**아비자트 배너지**  
MIT 경제학과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2019)

2021. 06. 24.(목) ~ 26.(토) |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소식

주최

주관

후원